

전남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저조...3년간 17.4% 그쳐

전남교육청, 86개 초·중·고·특수 사립학교 납부율 공개 전액 납부 8곳 불과 대부분 7% 미만...지난해 납부율 0% 3곳

전남지역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최근 3년 평균 17.4%에 불과했다. 지난해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립학교는 3곳이나 됐다. 전남도교육청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17.1%, 2019년 18%, 2018년 17%로 나타났다. 전남에는 초등학교 3개·중학교 34개·고등학교 44개·특수학교 5개 등 총 86개의 사립학교가 있

다. 법정부담금을 전액 납부한 사립학교는 여수 여도초·광양제철초·광양제철남초·여수 여도중·광양제철중·화순 능주중·광양제철고·화순 능주고 등 8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학교 대부분은 7% 미만이었다. 사학법인 법정부담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법인의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교직원 국민건강보험·사학연금·재해보상부담금·비정규직

4대 보험료 등이다. 미부담 때는 교육청의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국가비용으로 사립학교의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기준 전남지역 사립학교들이 납부해야 할 금액은 131억여원이지만 실제 납부액은 22억여원에 그쳤으며, 전남도교육청은 부족분 109억여원을 학교 운영비로 들어가야 할 금액에서 차감해 학교에 지원하고 있다. 사학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본 책무조차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에 대한 전남도 교육청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다. 지난 6월 강문성 전남도의회 의원은 전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위원회 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관리감독과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운영비 지원 등에서 어느 정도의 제재를 가하고 있고 당사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시급하지 않은 사업비를 조정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게 되므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문성 도의원은 "사립학교가 사립대학교와 같이 경쟁력을 갖추고 학생들이 만족하며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전남도교육청의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도 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 유무를 따져 교육예산을 차별 지원하는 제재 방안을 마련 시행중에 있고 법인 이사장들에게 학교법인 내 기부금 출연을 권고하고 있지만, 법인 내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이 없는 학교가 많아 법정부담금 납부를 무작정 강제할 수도 없어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호남대 외국인 유학생들, '자전거 타기' 행사를 열어 가을을 만끽하고 있다. 호남대는 코로나19에 지친 유학생들의 한국 생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이날 행사에 참가했다. 호남대학교(총장 박상철) 외국인 유학생들이 최근 영산강 서창 들녘에서 열린 '2021년 자전거 타기 대회'에 참가해 향수를 달래며 가을을 만끽하고 있다. 호남대는 코로나19에 지친 유학생들의 한국 생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이날 행사에 참가했다. <호남대 제공>

해외취업 이렇게...조선대, 11월 9~12일 '글로벌 취업설명회'

조선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가 학생들의 해외취업 지원을 위한 '글로벌취업 설명회 Cheer Up! 2차'를 개최한다. 이번 해외취업 아카데미는 해외 취업시장 현황, 인제상 등 해외진출 정보 등을 제공해 참가자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진행되는 해외취업 설명회는 아시아(9일), 미국(10일), 유럽(11일), 일본(12일) 등 국가별로 구분해 코로나 팬데믹 이후 변화된 해외 취업 전략을 안내한다. 또한 국내 글로벌 기업분석과 취업 성공을 위한 방법을 전달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조선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비대면(ZOOM)으로 진행된다. 활동혜택으로는 재학생에 한해 취업나무 10그루, 문화마일리지 10M가 제공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오는 11월 4일까지 학생통합지원시스템(CU+) 비교과과정프로그램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윤오남 조선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변화하는 해외취업 전략을 빠르게 안내하여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해외취업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 주기 위해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 기계공학 용준혁 학생 추계 학술발표대회 우수논문상

조선대학교 기계공학과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용준혁(사진) 학생(지도교수 조흥현)이 (사)한국지열·수열에너지학회가 주관하는 '2021년 추계 학술발표대회'에서 학술연구부문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용준혁 학생은 '온도 및 유량 변화에 따른 저온 용액열교환기 열전달 특성 분석'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해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논문은 지열 및 폐수열로 작동되는 흡수식 냉·온수기의 요소부품인 저온 용액열교환기의 열전달 특성에 대해 다뤘다. 용준혁 학생은 저온 용액열교환기의 고온측의 입구온도와 질량유량이 높아지면 판형열교환기의 열전달율과 총괄열전달계수가 증가함을 밝혔다. 이 논문은 지열 및 수열 분야 연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대 "유학생들과 K-POP 같이 불려요" '가을학기 어학연수생 및 학부생 특별활동 교육' 진행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가 유학생들의 안전의식과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특별활동 교육 프로그램이 눈길을 끌고 있다. 25일 광주대 국제협력처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매주 수요일 베트남과 중국, 라오스, 몽골, 미얀마 등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2021학년도 가을학기 어학연수생 및 학부생 특별활동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이번 특별활동 교육 프로그램은 안전교육과

문화행사, 취업특강 분야로 나눠 펼쳐지며 안전교육 분야는 119재난대응단의 도움을 받아 심폐소생술 및 화재 안전교육 등의 내용으로 열렸다. 총 3차례에 걸쳐 열린 문화행사 'K-POP 노래매우기'는 유학생들이 직접 선택한 노래 안녕(조이)과 아로하(조정석), Way Back Home(손)를 한국어로 따라부르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동강대, 전남농업박물관 '청년 쌀요리 경연' 금상·동상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 외식조리제빵과가 쌀 요리 경연대회에서 뛰어난 실력을 뽐내며 남도음식문화 우수성을 알렸다. 동강대 외식조리제빵과(학과장 이봉선)는 최근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에서 열린 '제6회 청년 쌀 요리 경연대회'에서 금상과 동상을 수상했다. 전라남도 농업박물관 주최, 문화사업진흥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경연대회는 청년들의 창조적

인 쌀 요리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쌀 소비 촉진과 창의적인 남도음식문화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동강대는 이준아·김미소(2년)팀이 '단호박 찹쌀 미수, 누룽지오곡 주먹밥'으로 금상을 수상했다. 또 김민규·이나연(2년)팀이 'K-RICE 튀긴 라이스페이퍼 찜과 채소 절임' 요리를 만들어 동상을 받았다. /채희종 기자 chae@

"타자들을 향한 따스한 말건넬의 아득한 순간"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장막'을 자신만의 언어로 승화

진혜진 시인 첫 시집

포도에서 만남시다

추천사

"진혜진의 첫 시집은 '사랑'의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사랑'을 상상하고 실천하고 꿈으로 각인해가는 불가항력의 과정을 담은 격정적 고백록이다. 그 세계는 때때로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악몽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시인은 그 장막을 뚫고 자신만의 시적 진실을 하염없이 노래해간다."

- 유성호 문학평론가·현양대 국문과 교수

진혜진 시인 프로필 | 2016년 경신신문,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산맥 등단 | 시집 '포도에서 만남시다' | 202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크문화창작기금 수혜 | 제11회 시산맥작품상 수상 | 도서출판 상상인 대표